

다카사고시의 역사 개요

천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극적인 변화를 이룬 마을 다카사고 지역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초기의 발전

다카사고 지역은 헤이안 시대(794-1185)부터 해안 환경과 항구, 소나무 가로수로 둘러싸인 흰모래사장으로 인기 있는 휴양지였습니다.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는 부부의 오랜 화합의 기쁨을 축복하는 노(能)의 상연 작품 「다카사고」가 이곳을 무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연이 전국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다카사고라는 말이 부부화합이나 상서로움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에도시대(1603-1867), 다카사고 지역은 현재의 효고현 남부에 있는 히메지번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다카사고 지역이 도시로서 번영함에 따라 부유한 상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입지 조건과 어업, 풍부한 쌀 생산, 가코가와에 유통하는 소금이나 쌀 등의 물자 집산지였기 때문입니다. 항구의 지나간 번영은 건축물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있던 호상들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 후의 발전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본 철도의 발달로 다카사고 지역 번영의 주축이었던 가코가와 선운은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입지와 풍부한 수자원,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해안가에는 현대적인 공장이 유치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쇼와 시대(1926-1989), 다카사고 지역은 공업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다카사고 지역에는 당시의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옛날의 생활을 느껴볼 수 있는 복고풍 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카사고 지역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재로 지금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